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CRATER LAKE

가제 : 크레이터 레이크 캠프장의 비밀

저자 : Jennifer Killick

출판사: Firefly Press

발행일: 2020년 3월 19일

분량 : 252 페이지

장르 : 모험 / 2부작 예정



* 더 타임즈 선정 이주의 어린이 도서, 아마존 베스트 셀러 / 프랑스, 일본 계약

* "오싹하면서도 활기차고 유머가 가득한 소설" - 「북셀러」

* "이 책은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이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포터블 매직 디스펜서」

랜스와 반친구들은 잔뜩 들뜬 기분으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참가하기 '크레이터 레이크'라는 새로운 캠프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가 드디어 캠프장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피범벅이 된 좀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분위기는 완전히 암울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캠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 나빠 보였다. 대체 이 소름 끼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랜스와 친구들은 이 캠프장에 숨어 있던 신비한 생물들이 세우고 있는 계획을 막아야만 했다.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잠들어서는 안되었다. 랜스와 친구들은 과연 그 괴이한 존재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낼 수 있을까? 온몸에 닭살이 돋게 만들어버릴 공포, 공상과학 소설이다.

열한 살 소년 랜스는 쳇, 매스킨, 카티야를 비롯한 친구들과 캠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있었다. 이 캠프장은 얼마 전에 새로 지어진 곳이었고 랜스네 학교 친구들이 그 캠프장을 이용하게 된 첫 방문객들이었다. 게다가 이 캠프장은 수년 전에 지구로 추락한 유성이 남긴 거대한 분화구에 지어진 신비로운 장소였다. 하지만 랜스는 건강상 이유로, 다른 친구들이 여섯 명씩 모여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홀로 숙소를 이용해야 했다. 사실 랜스는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친구들만큼이나 이 캠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랜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몸이 아팠고 집안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있었고 최근에는 같은 반 친구인 트레이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는 바람에 꽤나 마음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랜스는 이 캠프를 통해 선생님들의 말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랐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유니폼으로 보아 크레이터 레이크 캠프장의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피범벅이 된 채

길을 가로 막고 서 있는 바람에 급하게 버스가 멈추고 말았다. 그의 옷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고 피부는 멍과 상처 때문에 자줏빛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으며 눈 주변은 붉게 부풀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바로 버스에서 내려 그 남자를 살폈고 ‘데일’이라는 그 남자는 모두들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구급차를 부른 후에 버스 운전자에게 그를 맡긴 후 아이들을 인솔해 직접 걸어서 캠프장까지 가기로 했다.

캠프장에 도착하자 검은 색의 거대한 문이 서 있었고 학교 사람들이 도착하자 저절로 문이 열렸고 마치 감옥 같은 황량한 건물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린 후에 캠프장 직원인 ‘디거’라는 해그리드 같은 몸집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고 데일이라는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의 말에 이상한 웃음을 짓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의 유니폼에는 수상한 핏자국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폭염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얼마 후 학생들은 모두 캠프장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큰 체육관 같은 곳에서 오직 디거만이 식당에서 일 하고 있었고 메뉴는 오직 피인지 토마토 수프인지 알 수 없는 괴상한 음식뿐이었다. 게다가 디거는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을 거대한 텔레비전이 있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 방에 모아두고 여왕벌과 일벌, 식민지에 대한 이상한 설명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다 본 램스는 쳇, 매스킨, 카티야와 자신의 독방에서 밤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후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아이들이 오지 않자 몰래 방 밖으로 나가 숙소 복도를 살폈다. 그리고 숙소의 모든 문들이 바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램스는 열쇠를 이용해 친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주었고 혹시 이 것이 트렌의 짓인지 확인 하기 위해 트렌이 있는 숙소로 향했다. 그리고 역시나 잠겨 있던 트렌의 방에 모인 아이들은 이 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아이들은 숙소의 다른 편으로 가서 다른 친구들을 구출했고 그들의 눈이 이상한 곤충의 눈처럼 다 변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눈을 가진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잠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거대한 돌연변이의 하악골, 소름 끼치는 벌레 눈, 벗겨진 피부 위에 말벌이 갓고 있는 보풀들을 드러내고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게 되었다. 외계에서 온 흙씨들이 사람들을 말벌과 같은 곤충으로 변화시키고 있었고 외계 생명체들이 이들을 통해 숲 속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램스와 친구들은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방법을 찾고 외계인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쳇이 발견한 마법의 이끼에 달려 있었다. 성인 독자들도 소름이 끼칠 만큼 강력한 SF 공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니퍼 클릭 (Jennifer Killick)은 Brunel University에서 문예창작 전공 석사 학위 과정 중 첫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쓴 『Alex Sparrow』 시리즈와 중급 공상 과학 모험 『Mo』, 『Lottie』 및 『Junkers』의 저자이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교와 축제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녀의 책은 The Reading Agency의 Summer Reading Challenge에 세 번이나 선정 된 바 있다.

제목 : THE CURE FOR A CRIME
가제 : 죽음병의 비밀을 찾아라
저자 : Roopa Farooki
출판사: OUP Oxford
발행일: 2020년 1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 작가이자 의사인 저자가 쓴 메디컬 추리극

언제나 밝고 씩씩한 성격까지 똑 닮은 쌍둥이 자매인 알리와 틀립은 외과의사인 엄마 덕분에 간단한 응급처치부터 유용한 의학 지식에 대해 꽤 해박한 아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엄마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쉽게 죽음에 빠지고 건강증까지 심해지자 가장 먼저 엄마의 남자 친구를 의심하게 되었다. 비록 사람들은 엄마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엄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자, 결국 자매는 외할머니 난난과 함께 엄마의 이상증세와 수상한 그녀의 남자 친구의 비밀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재치와 유머, 유용한 의학적 지식이 가득한 의학 탐정 소설이다.

알리와 틀립의 엄마는 원래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아빠 역시 화학 교사였다. 두 사람은 한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해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하지만 쌍둥이들이 아직 신생아실에 있었던 그 때, 아빠는 뇌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딸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엄마는 교사 일을 그만 두고 의과 대학에 입학해 쌍둥이들의 아빠와 같은 이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경 의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마을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알리와 틀립은 늘 이토록 대단한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에게에는 고민이 하나 생겼다. 한달 전, 엄마의 새 남자친구 브라이언 스티븐이 알리와 틀립, 엄마의 삶에 불쑥 들어왔기 때문이다. 엄마와 브라이언은 뇌의학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그는 자칭 유럽 내 최고의 뇌 의학자였다. 알리와 틀립은 그가 하도 스스로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 놓는 바람에 귀가 딱지가 앓을 것만 같았다. 또한 그는 잘 웃지도 않는 무뚝뚝한 성격에, 늘 일만 하느라 식사 조차 따로 하며 알리와 틀립의 놀이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문까지 잠근 채, 자신의 작업실로 쓰고 있었다. 때문에 쌍둥이 자매는 그가 혹시 남몰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엄마는 그가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았고 늘 졸린 눈으로 말 한마디 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알리와 틀립은 늘 돌만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게 불안하기만 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늘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틀립과 알리에게도 역시 진행중인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알리가 엄마로부

터 배운 실생활에 유용한 의학적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틀립은 혹시 알리가 엄마에 대한 증상마저 이 블로그에 올릴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신들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엄마 이야기만큼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알리는 최근에는 엄마와 관련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틀립은 이제부터 함께 그 블로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브라이언이었다. 엄마는 보통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집에 있는 법이 없었지만 브라이언은 이미 자신의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머물며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쌍둥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두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와이파이까지 제공 되는 장소인 엄마의 병원 휴게실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쌍둥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야간 근무 중일 때, 외할머니 ‘난난’조차 자신들을 돌봐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종종 병원 응급실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리와 틀립은 무사히 병원 안에까지 들어갔지만 곧 병원 직원의 눈에 띄는 바람에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때 할머니 ‘난난’이 나타났다. 난난은 미스터리애 싸여 있는 할머니로 자신만의 기술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내곤 했던 것이다. 난난은 젊은 시절 총상, 독극물 중독, 전기 쇼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고 비록 ‘영광의 상처’로 휠체어가 있어야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도 역시 가죽 자켓에 코에 다이아몬드 피어싱까지 있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할머니였다. 난난은 우선 알리와 틀립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자신의 휠체어를 고쳐주느라 늦은 것이라고 말하며 특별 가산점까지 받도록 만들어 주었다. 알리와 틀립은 대체 난난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학교로 돌아온 쌍둥이는 이번엔 학교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마와 마찬가지로 다른 선생님들 역시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하나 둘 잠들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교실 바깥을 보니 브라이언이 학교에 와 있었다. 쌍둥이는 결국 브라이언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실험과 이 이상한 전염병이 분명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쌍둥이의 주장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결국 알리와 틀립은 실험 중이라 바쁘다는 브라이언의 요청으로 자신들을 데리러 온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 놓았고 아마도 신경의학자인 그가 자신의 실험을 위해 엄마와 다른 선생님들에게 독성 물질을 주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수사극에 같은 반 쌍둥이인 제이와 자크까지 끌어 들였다. 쌍둥이들과 할머니는 과연 이 병과 브라이언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다양한 의학적 실험, 의학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신선하고 유머러스한 추리극이다.

<저자 소개>

루파 파루키 (Roopa Farooki)는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다. 그녀는 1995년 옥스포드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광고 분야에서 일한 후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 작품들 중 두 권은 Orange Prize 후보에 올랐다. 그녀는 수상 경력을 가진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가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